

‘3할 유격수’ 박찬호 “내년엔 꼭 골든글러브”

10년만에 3할 타율 달성
올 시즌 130경기에 출장
척골 골절로 시즌 마감
“출루·장타율도 높일 것”



“프로 경력에서 3할 타율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이 따랐습니다. 내년에는 출루율과 장타율 수치를 더 높여 골든글러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KIA타이거즈 내야수 박찬호의 2024년 각오다.

박찬호는 지난 2014년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전체 50번)로 KIA에 지명돼 프로에 입성한 뒤 10시즌 만에 3할 타율을 달성하며 공수주를 갖춘 선수로 자리 잡았다.

‘키스톤 콤비’로 불리는 2루수와 유격수는 체력 소모가 커 타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다.

2할5푼 타율만 기록해도 준수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박찬호는 올 시즌 130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1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3푼 가까이 끌어올린 수치이고 40볼넷



KIA타이거즈 내야수 박찬호가 지난 11월27일 웨스턴조선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30도루 52타점 73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력에 힘을 보탤다.

박찬호는 “누군가 3할 타율 얘기를 하

면 홈런 10개를 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했다. 3할 타율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신기하다. 운도 많이 따랐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공수주 활약을 펼치면서 올해 신설된 KBO 수비상 주인공이 됐다. 각 구단 감독과 코치, 단장 등 투표 점수와 수비 기록 점수를 합산해 수상자를 가렸는데 오지환(LG트윈스)과 공동 수상했다. 골든글러브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며 경쟁을 펼쳤다.

그는 “골든글러브는 제 성적도 좋았지만 오지환 선배가 강해 마음을 내려놔야 했다”며 “크게는 골든글러브를 내심 목표로 하고 있었고 작게는 작년보다 발전해 더 나은 시즌을 보내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또 “제 스스로 야구선수로서 성숙해졌다고 느낀다”며 “수비상은 투표 점수에서 많이 밀렸다. 코칭스태프가 인정한 선수는 (오)지환이 형이다. 저는 기록으로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겸손함을 드러냈다.

수비상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박기남 코치의 지도를 꼽았다.

현역시절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으로 수비 능력을 선보였던 박 코치는 올 시즌부터 KIA의 수비코치를 맡고 있다.

박찬호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박기남 코치가 잘 잡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야 안타는 실책과도 같다. 제

잘못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팀적으로는 내야안타와 실책이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며 “짧게 공이 튀었을 때 실책과 내야안타의 기로에 있는 경우가 있다. 반반 확률이 라도 도전을 하는 편인데 맏 윌리엄스 전 감독이나 박기남 코치 모두 제 신념에 믿음을 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 시즌을 부상으로 조기 마감해야 했다. 시즌 전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손목통증으로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합류가 무산됐고 9월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가 손상됐다. 10월에는 사구에 팔뚝을 맞은 뒤 척골 분쇄 골절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그는 “올 시즌 제일 아쉬웠던 점이 부상이다. 원래 잘 다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올해는 세 번이나 당했다”며 “잘 풀리는 시즌에 부상을 세 번이나 겪어 더 아쉬웠다. 올겨울 단계적으로 몸을 끌어올려 캠프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내년에는 타율보다 출루율과 장타율 수치를 올리고 싶다. 매년 우승이 목표고 개인적으로는 꼭 골든글러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신정훈(왼쪽) 송원스포츠클럽 회장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지난 7일 광주 남구청에서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송원스포츠클럽 제공

송원스포츠클럽, 남구반다비체육센터 위탁 운영

내년 개관... 2년간 운영 수영장·실내체육관 조성

사단법인 송원스포츠클럽이 광주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송원스포츠클럽은 지난 7일 광주시 남구청과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원스포츠클럽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남구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60억여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부터 월산근린공원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내년 1월 개관한다.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갖춰졌다. 수영장은 25m 길이의 레인 7

개를 조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실내체육관은 농구, 보치아, 배드민턴, 탁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용도로 만들어졌다.

지상 2층에는 가상스포츠체험·힐링을 할 수 있는 명상실과 취미실이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과 재활치료와 요가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공간인 다목적실이 들어섰다.

신정훈 송원스포츠클럽 회장(송원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은 “장애인과의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있는 체육시설로서 남구민의 체력증진과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전국에서 가장 멋진 반다비 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김금정 등 4명 영입 보강

시즌 첫 경기 앞두고 선수단 재편 강경민 SK슈글즈로 FA 이적 골키퍼 손민지 등 3명 계약 만료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재편에 나섰다.

1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2024년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은 강경민의 자유계약선수(FA) 이적과 베테랑 골키퍼 손민지 등 선수 3명의 계약 만료 등으로 4명이 팀을 떠나고 SK 슈가글라이더즈 센터백 김금정 등 4명이 합류한다.

센터백 강경민은 FA 자격을 얻어 지난 달 7일 SK 유니폼을 입기로 했다.

강경민은 인천비즈니스고를 졸업하고 2014년 11월 신인드래프트서 전체 2순위로 광주도시공사에 입단해 2015~2016시즌 신인왕에 올랐으며, 2019~2020시즌, 2020~2021시즌, 2022~2023시즌에

는 정규리그 MVP와 득점왕을 수상한 간판선수다. 강경민의 SK 이적으로 광주도시공사의 전력 약화가 우려된다.

오는 31일 계약 만료되는 베테랑 골키퍼 손민지와 피봇 박세림, 레프트윙 나지현 등 3명은 경기력 저조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손민지는 지난 2020년 12월 광주도시공사로 영입돼 2020~2021시즌 방어율 31.25%를 기록, 우하림과 함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며 팀의 정규리그 4위와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 통합 3위에 기여했다. 하지만 2021~2022시즌과 2022~2023시즌에는 기량이 떨어지며 골키퍼 박조은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다.

2022 여자 실업 핸드볼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박세림과 2023년 여자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나지현은 백업 선수로 뛰었다.

광주시체육회는 선수 4명의 이탈에 따라 부산시설공단 피봇 이한솔과 서울시청 피봇 박지호, SK 센터백 김금정, 일본 무

고치와와대 센터백 시미즈 아이카 등 4명을 영입하기로 했다.

이한솔은 지난 시즌 SK와의 1라운드에서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쳐 재활 치료 중인 주전 피봇 원선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한다. 박지호는 박세림 대체 선수로, 김금정은 강경민 대체 선수로 각각 영입한다. 시미즈 아이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재활 중인 센터백 송혜수의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영입하기로 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팀 최고 골잡이인 강경민이 떠나고 원선필, 송혜수 등 주축선수 부상으로 걱정이 된다”며 “이번 선수단 재편으로 공격력은 약화된 반면 수비력은 보강이 됐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내년 1월5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디펜딩 챔피언’ 삼척시청과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첫 경기를 치른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정책참여단 종합 성과평가 최우수 시도 선정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14일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3년 시도 장애인체육 정책참여단 종합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의 2023년 시도 장애인체육 정책참여단 운영사업은 지역별 장애인체육 정책제안 및 현안 공유를 통한 장애인체육 정책(안)을 수립하고, 학생체전 및 전국체전 간 대회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개선사항 수립 및 반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3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정책참여단 위원 6명을 구성해 연중 장애인체육 정책제안 4회,

대회 모니터링 양식 수렴 100명(5월 학생체전 40명·11월 전국체전 60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참여단 사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정책참여단 위원을 정책제안 및 대회 모니터링 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장애인 유형별, 종목별 다양화를 꾀해 구성한 점과 우수한 정책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정수 선수 어머니인 이승숙 위원이 우수 정책위원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승숙 위원은 장애인체육 학생선수들

의 동기부여를 위한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이천선수촌 단체방문, 신규 장애인 선수 유입을 위한 장애인체육 꿈나무 발굴 전담 팀 구성 등 우수한 정책 제안 2회를 통해 선정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 김용훈 주임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했다.

이승숙 정책참여단 위원은 “이 상은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닌 우리 정책참여단 위원 6명이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장애인체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결에서 돕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